**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 아시아영화엑설런스상**

**일본 배우 아베 히로시 수상**

**오는 3월 12일(일) 홍콩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가 아시아영화엑설런스상 수상자로 일본 배우 아베 히로시를 선정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아시아 최고의 배우”**

**아시아영화엑설런스상에 일본 배우 아베 히로시 선정 눈길!**



**아시아필름어워즈는 홍콩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도쿄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설립한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AFAA)에서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아시아영화엑설런스상은 아시아영화와 문화 전반에 걸쳐 뛰어난 성취를 거둔 아시아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는 일본 국민배우 아베 히로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배우 아베 히로시는 지난 1987년 영화 <하이카라 씨가 간다>로 데뷔해 드라마 [HERO](2001), [드래곤 사쿠라](2005), [결혼 못하는 남자](2006) 등 인기 작품에 연이어 출연하며 도전적인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모델, 가수, 배우, 연극 등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행보로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세계적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대표작 <걸어도 걸어도>(2008),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2011), 드라마 시리즈 [고잉 마이 홈](2012), <태풍이 지나가고>(2016)에 연이어 출연하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배우 아베 히로시는 홍콩과 일본 합작영화 <공작왕 2 - 아수라>(1990)을 시작으로 배우 양조위, 장백지 주연의 <동경공략>(2000), 첸 카이거 감독의 <요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2017) 등 국내외 90편 이상의 작품에 출연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로 거듭났다.

섬세하고 빛나는 연기력으로 제108회 일본드라마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그는 제36회 일본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으며, 제38회 일본아카데미상에서 영화 <이상한 곶의 이야기>(2014)와 <자쿠로자카의 복수>(2014)로 우수 남우주연상과 우수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영화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2021)로 다시 한번 제45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우수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배우 아베 히로시는 지난해 제21회 뉴욕아시아영화제에서 아시아스타상의 영예를 안으며 30년 차 베테랑 배우의 위엄을 보여줬다.

한편, 아시아영화엑설런스상은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배우 이병헌이 수상한 가운데, 올해는 배우 아베 히로시가 열한 번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의 윌 프레드 웡 이사장은 **“일본 연예계에서 아베 히로시의 포지션은 유일무이하다. 연기를 향한 그의 열정은 일본 영화와 드라마에 신선함과 활력을 가져왔으며, 그는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전한데 이어, 배우 아베 히로시는 **“아시아필름어워즈라는 큰 시상식에서 아시아영화엑설런스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수년간 함께한 스태프들과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일본 배우 아베 히로시를 아시아영화엑설런스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제16회 아시아필름어워즈는 오는 3월 12일(일) 홍콩고궁박물관 경마클럽강당에서 개최된다.

|  |
| --- |
|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 (Asian Film Awards Academy)**  비영리단체인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The Asian Film Awards Academy, 이하 AFAA)는 아시아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 홍콩 및 도쿄국제영화제가 함께 설립했다. 아시아영화와 영화인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AFAA는 매년 아시아필름어워즈를 개최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아시아영화 산업을 조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필름어워즈는 지난 2007년 시작된 영화 시상식으로 AFAA의 회원은 과거 후보들과 수상자들로부터 선정된다. 시상 부문에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이 있다. 회원들은 아시아필름어워즈 투표에 참여하는 동시에 아시아와 전 세계의 영화 전문가 및 관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AFAA 활동에도 참여한다. |